

정부의 油價통제 폐지되어야 에너지研, 제품수출입도 자유화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에 의한 油價통제를 폐지하고, 석유제품의 수입 및 先物시장의 이용과 경제적인 비축을 통해 탄력적인 공급체계를 이룰수 있도록 油價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회장 李承源) 주최의 제 7 회 석유세미나에서 李福載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 의한 油價관리제도는 탄력적인 공급체계를 저해하고 정유회사의 원가절감노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 정부에 의한 油價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시장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油價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박사는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로 석유제품수출이 높아가고 또 수출제품이 重質제품에서 중간제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제품수출입을 자유화시켜 것을 촉구하고, 적정수준의 제품수입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박사는 또한 수요측면에서 산업 및 發電부문에서의 유연탄, 원자력에 의한 연료대체와 수송부문의 수요증가로 제품수요의 경질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는 공급부문에서의 막대한 투자를 불가피하게 하므로 수요구조의 변화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發電부문에서의 B-C 油 소비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石油화력발전소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發電用 B-C 油가격을 국제시장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내버스연료를 輕油에서 輕油·부탄 混燒방식이나 부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李박사는 또한 석유제품수요구조의 변화와 석유사용 연소기기의 다양화에 따라 제품규격을 細分化하고, 低공해 석유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규격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3구간에 송유관 건설

大田-서울, 麗水-大田 등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瑞山-天安 간 송유관건설공사가 끝나는 89년부터 大田-서울, 麗水-大田, 93년부터

터 溫山-大田간 장거리송유관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瑞山-天安간 92km 구간의 송유관 건설사업을 오는 89년까지 완공시킨 다음 89년부터 92년까지 2,

3차로 大田-서울, 麗水-大田간 1백 52km 및 2백81km 구간의 송유관건설사업을 각각 8백97억원 및 7백28억원을 투입, 추진키로 했다.

또 4차로 93년부터 96년까지 2백 85억원을 투입, 溫山-大田간 2백85km 구간의 송유관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4월이후 짓는 아파트 열량계 설치의무화

내년 4월이후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난방비를 자기가 쓴만큼 내게 된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이후 신축되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가구별 積算열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방비 징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중앙난방식아파트의 경우 각 가구의 사용열량에 관계없이 평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써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난방에너지절약을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자부는 11월 1일부터 88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美星아파트(9백11가구)와 京畿道 城南市 은행동 주공아파트(1천9백가)를 시범아파트로 지정,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2년여동안 마련한 각 가구의 특성에 따른 난방비계수를 적용해 난방비를 부과키로 하고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보완, 88년 4월부터 전국의 신축중앙난방식 아파트로 확대키로 했다.

대체에너지개발 본격

태양광발전등 추진

내년부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동력자원부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2천년까지 대체에너지이용률을 현재 총에너지사용량의 0.85%에서 3%선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1단계로 내년부터 92년까지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모두 5백억원을 투자, 태양열난방, 태양광발전,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등 첨단대체에너지기술을 집중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은 정부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산업계·학계로 하여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를 매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韓國送油管사장에

李俊燮씨 선임

韓國送油管주식회사는 지난 11월 7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에 李俊燮 油開公부사장을 선임했다.

油開公 이사장에

千命基씨 임명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한국석유개발공사 이사장에 千命基 대한방직협회장을 임명, 발령했다.

석유수요경질화추세 가속화

3/4분기 경질유비중 68.6%로 증가

發電用 B-C油 소비감소와 수송용 석유소비증대로 국내석유수요의 경질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경질유 소비비중은 85년 1~9월의 59.8%에서 86년 동 기간에는 64.5%, 그리고 87년 동기간에는 전년동기대비 4.1%포인트 증가한 68.6%를 기록했다.

1~9월중 유종별 석유소비를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휘발유 19.3%, 경유 10.6%, 나프타 12.0% 증가하였고, 가정 취사연료인 프로판과 영업용 택시연료인 부탄은 각각 31.0%, 11.0%가 늘어났다. 그 반면에 B-C油는 산업, 가정, 상업및 수송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8.5%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발전용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65.0% 감소한 데 기인된 것이다. 1~9월중 부문별 석유소비를 보면, 수송용이 23.8% 증가했고, 산업용도 경기활성화에 따라 9.2% 증가하였으며, 가정·상업용이 14.9% 증가한 반면, 발전부문은 원자력발전의 확대및 LNG 투입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3.6% 감소했다.

제 2 차 석유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脫石油정책은 석유제품수요의 균형적 감소 보다는 주로 發電및 산업부문에서 B-C油의 대체를 강력히 촉진하는 脫B-C油정책 쪽으로 추진됨으로써 LPG, 휘발유, 경유등의 소비는 늘고 있는 반면, B-C油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등 석유제품수요의 경질화현상과 이로 인한 석유제품수급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

11월 나프타가격 인상

工場渡 6.39%...ℓ당 92원44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국내 나프타 공급가격을 6.39% 인상,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지난 10월의 1당 86원89전에서 92원44전으로 5원55전이 오르고, 稅포함가격기

준으로는 10월의 1당 95원58전에서 101원68전으로 6원10전이 올랐다.

지난 10월중 국제나프타 평균가격은 日本C&F(운임포함조건)가격으로 톤당 167달러18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9월의 151달러77센트보다 15달러41센트가 오른 것이다.

현재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은 대한석유협회가 국제가격에 연동, 매달 일본 C&F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나프타 공급가격의 변동추이 는 다음과 같다.

〈국내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ℓ, \$/t)

	국내가격 (稅포함)	조정 (%)	국제평균가격 (日本 C & F 기준)
1986. 1	168.42	▲ 4.01	210.50
2	146.10	▲ 13.25	149.91
3	103.58	▲ 29.11	132.34
4	70.54	▲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 11.24	91.40
8	65.21	▲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134.58
11	91.95	▲ 2.66	135.30
12	91.86	▲ 0.10	137.36
1987. 1	92.72	0.93	162.53
2	109.03	17.59	156.57
3	101.71	▲ 3.96	166.73
4	110.96	5.97	174.17
5	111.37	3.07	177.19
6	111.63	0.23	180.57
7	114.85	0.19	177.79
8	112.20	▲ 2.31	157.08
9	99.14	▲ 11.64	151.77
10	95.58	▲ 3.59	151.79
11	101.68	6.39	-

油公, 대리점경영자 세미나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

油公은 전국의 계열 대리점 사장을 세라톤 워커히호텔로 초청, 2박 3일 일정으로 87년도 대리점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취급제품에 따라 일반유, 아스팔트, 벙커링 및 용제 대리점을 1조, 엘퍼지 대리점 및 충전소를 2조로 하여 각각 10월 13일과 19일에 2기

로 나누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모두 1백6개 대리점의 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행사로는 강의와 각테일 및 만찬회, 그리고 골프대회가 진행되었다.

강의내용을 보면, 「동양의 기업경영관」(정현우박사), 「단(丹)」(단학선원)등 외부강사에 의한 강의와, 당사 손길승사장실장의 「기업경영과 노사관계」, 황두열 영업기획부장의

「유공의 CIP전략」등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각테일 및 만찬회에는 油公의 김항덕사장이 참석, 환영사를 통하여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도 同社제품 판매에 정성을 다하는 대리점들에 사의를 표하고 참가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또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 열린 골프대회와 사적순례는 각자의 택일에 의해 참가자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장소를 경기도 용인군의 골드컨트리클럽으로 옮겨 열린 골프대회 및 충남 천원군의 독립기념관을 전학한 사적순례 행사에는 참가자들과 당사의 관계 임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친목을 다짐으로써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더욱 깊게 하였다.

**油公, 합성연구실 설치 운영
고분자종합·유기합성 연구수행**

油公기술개발부문은 공장부지내 기술지원연구소에 합성연구실 설치 사업을 완료, 지난 10월 15일 임용성기술개발담당부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합성연구실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3월 설치작업에 착수, 약 4억2천만원을 들여 신설된 이 합성연구실은 반응기 시스템과 GPC, UV/VIS, VPO등 최신 분석장비 및 물성 측정장비 등을 갖추고, 고분자종합/촉매기술 및 유기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고분자종합 및 촉매기술은 고분자화학과 정밀화학 분야의 핵심기술로서, 당사에서 종합화학기업 실현

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등 합성수지 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이 연구실의 설치 운영으로 同社는 합성수지의 생산 판매에 앞서 그 핵심기술의 습득을 기하고 고분자융합 및 유기합성에 관한 본격적인 R&D를 추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립예정인 대덕연구소의 설립추진에도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油公, 솔벤트취급안전세미나 개최 이론강의 및 소방훈련실습

油公은 용제사업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경주코오롱호텔 및 당사 울산공장에서 제11회 솔벤트 취급안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67개 솔벤트 거래처에서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솔벤트의 종류, 성질 및 품질관리, 저장출하와 손실방지, 일반안전 등에 관한 당사 강사진의 이론강의에 이어 정전기 사고 예방 및 탱크화재에 관한 비디오 시청후, 당사 울산공장에서 관련 현장 견학 및 소방실기 훈련을 가짐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솔벤트 취급상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油公, 勞結24주년기념체육대회 석유화학생산부 종합우승

油公 노조는 지난 10월 17일 울산 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장 종업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해외자원개발 허가절차 간소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동력자원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의 장기안정적 공급능력을 높이고,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과 우선구매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해외자원개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월 2 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해외자원의 우선구매권고대상 범위에서 국가기관등 공공단체 이외의 민간실수요자및 단체가 농축산물에 한해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해외자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우선구매권고대상자를 확대하고, 개발해외자원의 반입권고와 관련하여 반입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공공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르도록 했다. 또 해외개발사업의 허가·취소등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대상사업을 국민경제와 관련이 깊은 주요자원의 개발사업에서 주무부장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조정하고, 해외자원개발심의회 심의대상사업을 대규모사업및 주요사업에서 주무부장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조정함으로써 협의대상사업및 심의대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시켜 허가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 광물, 농축산물등 해외자원의 구체적 범위를 각주무관서의 정부조직법상 업무범위와 일치시키며, 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무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자원의 개발범위를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해외자원개발방법에 개발된 자원과 동종의 자원을 다른 지역에서 교환, 수입하는 방법도 포함토록 하여 해외자원개발방법을 확대하였다.

결성 24주년기념 제17회 사장이 맹탈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김형대위원장의 회사, 김항덕사장의 축사 (윤대옥공장장대독) 및 김유곤 전국화학연맹 사무처장(전 유공노조위원장)의 축사가 있는 후, 지난해 우승팀인 정

비부의 우승기 반환에 이어 축구, 씨름, 줄다리기, 8백미터 계주 및 배구경기 등 5개종목의 경기에 들어갔다.

공장 전부서를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치룬 축구, 배구, 줄다리기의 성적을 보면, 축구경기에서는 동

승용차 燃比표시 의무화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위해

정부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에너지소비효율표시 기소재로 지정하여 자동차광고시에 에너지소비효율(연비)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자동차광고내용에 연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연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구매시에 연비가 높은 차량을 선호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자로 하여금 연비가 높은 에너지절약형 차량을 개발, 생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자부는 이미 상공부, 교통부, 환경청 및 자동차제조업체 등과 연비표시의무화대상차종, 연비측정방법 및 측정기관 등 주요 세부 시행방안에 관해 협의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의 연비표시의무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美国, 日本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자동차의 연비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광고물 안내책자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6 조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할 에너지사용기자재를 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동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그 결과를 표시하고, 또 동기자재에 대한 광고시 에너지소비효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력실과 석유정제부가 각각 청팀과 백팀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배구는 노무·관리팀(청팀)과 석유화학생산부(홍팀), 그리고 줄다리기는 운영부(청팀)와 석유정제부(홍팀)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씨름경기에서는 석유정제부가 우승, 석유화학생산부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8명의 부서장이 각팀에서 스타트를 끊고 여직원 1명씩을 주자

에 포함시킨 계주경기에서는 석유화학생산부가 1위, 종합팀이 2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油公공장, 제9회 유공취미전 연인원 3천여명 관람

油公공장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울산시내 공간미술관 전시장에서 제9회 유공취미

전을 개최하였다.

윤대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진 이번 취미전에서는 공장 종업원 및 사택부인회에서 출품한 그림, 서예, 수석, 분재, 사진, 공예 등 모두 2백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4일간 연인원 3천여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湖油, TPA 합작투자 체결 삼양사 및 미쓰비시화성 참여

湖油는 지난 9월 10일 삼양사 및 일본의 미쓰비시화성과 연산 20만톤 규모의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을 위해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三南石油化學株式會社)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는 자본금 288억원 총 투자비 1천2백억원으로 1988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989년말까지 여천공장 부지내에 공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본 공장 건설을 위해 미쓰비시화성은 제품의 품질 및 제조가에서 경쟁력 있는 개량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TPA 제조 기술을 제공하며, 湖油는 현재 건설 추진중인 방향족 제조 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파라크실렌을 원료로 판매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삼양사는 생산되는 TPA의 대부분을 구입, 폴리에스터 섬유제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파라크실렌을 산화시켜 제조하는 TPA는 현재 합성섬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비롯하여 비데오테이프 및 청량음료병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소재로도 점차 각광받고 있다.

油公, 신규에틸렌 및 폴리올레핀 제조시설 기공

油公은 지난 10월 30일 울산공장 건설현장에서 김항덕사장을 비롯하여 박종률화학사업부사장, 윤대욱공장장 등 관계 임직원과 선경건설 김중현사장을 비롯한 건설관계자 등 모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에틸렌제조시설 및 폴리올레핀제조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신규 에틸렌제조시설은 모두 2천6백7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연산 40만톤의 국제 경제규모를 갖추고 오는 89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同社는 지난 72년말 국내 최초로 연산 15만5천톤 규모의 에틸렌제조시설을 건설한 바 있는데, 그 후 15년만에 이 신규제조시설을 착공하므로써 에틸렌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同社는 지난 86년 11월 이 시설 건설을 위하여 최신 밀리세컨트(Milli-second) 분해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켈로그(M.W.Kellogg)」社를 기술도입선 및 주계약자로 선정, 87년 1월에 관련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켈로그사에 의해 이 시설의 기본설계를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신규에틸렌제조시설과 함께 기공식을 가진 폴리올레핀제조 시설은 연산 12만톤 규모의 폴리에틸렌(PE)과 8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PP)등 2개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8백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오는 89년 6월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同社는 지난 8월 「듀퐁 캐나다」사와 폴리에틸렌 공장에 대한 LLDPE 및 HDPE 프로세스 기술도입계약을, 그리고 9월에는 이탈리아의 「하이몬트」사와 폴리프로필렌 공장에 대한 스페리폴(Spheripol)프로세스 기술도입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현재 양사에 의해 이 두 공장의 공정설계를 진행중이다.

이 폴리올레핀제조시설 건설사업은 합성수지부문 진출전략의 일환으로서, 합성수지사업은 당사가 종합화학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화학사업 다변화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또한 이 폴리올레핀제조시설에서 PE와 PP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인근의 신규에틸렌제조시설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됨으로써, 에틸렌제조시설과 그 계열공장인 폴리올레핀제조시설을 수직적으로 통합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同社는 선진국과 대등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종합화학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湖油 임원세미나

10. 30~31, 道高에서

87년도 임원세미나가 10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湖南精油와 방계회사 전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忠南道高에서 실시되었다.

85년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3회째가 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具斗會 사장은 훈시를 통해 취임후 3개월여 동안 느낀점을 피력하면서 『호남정유 경영체제 및 임직원의 자질은 우수하다』고 전제한 후 하의상달의 의사소통과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 경영자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산업사회와 발전적 노사관계」, 「90년대의 경영과 대응전략」 그리고 「도전과 대응」에 관한 경영특강과 「판소리 이해」 및 상호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과정등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湖油, 사원 일어능력 평가

우수자에 해외연수기회 부여

湖油는 향후 일본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87년도 사원 일어능력 평가를 지난 9월 22일, 29일에 본사 및 공장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는 필수대상자 및 평가희망자 81명이 응시하였는데 전체 평균은 180점(500점 만점)이며, 최고 점수는 400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 박승엽(법무부), 차일환(총무부) 2명

에 대해서는 11월 2일부터 1개월동안 일본에 파견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湖油, 회사소개 멀티슬라이드제작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기대

湖油의 회사 소개 멀티슬라이드(Multi-Slide)가 지난 9월 23일 제작되었다.

이번에 제작된 멀티슬라이드는湖油와 엘지애드가 6개월간에 걸쳐 제작하였는데 방영시간은 10분이며, 새로운 영상기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회사소개 및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湖油, 황의근 사우 국전 서예부문 입선

湖油 여천저유소 황의근 사우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입선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황의근 사우는 그동안 국전 입선 2회, 전남도전 입선 연 4회, 신미술대전 특선, 한국 서예대상전 특선 등 여러 차례의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국전 출품작품은 초서체 강수청금(강樹靑琴)으로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파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한편 1987년도 전남 도전에서도 황의근(여천저유소) 사우를 비롯하여 정영기(정비부), 안세훈(총무부, 생산) 사우가 입선의 영광을 차지하였는데, 전남도전 작품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전시되었다.

湖油 동우회 소식

사진·테니스·뉘시·배구반

●본사 사진반(반장:심재혁 부장)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백운동 계곡에서 야외 촬영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그동안 사진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최운 총무(관련회사 진출)의 송별연을 겸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사진반원들은 최도연 사우(전주사무소)를 새로운 총무로 선출하고 앞으로 사진반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공장테니스반(반장:박상조 이사)은 지난 9월 27일 추계 개인복식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7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이번 대회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A조:이병진(운영부), 문원식(운영부)
- B조:정귀철(정비부), 전종원(정비부)
- C조:이정행(총무부), 조성익(총무부)

<장년부>

- 우승-박종서(총무부), 조동익(총무부)
- 준우승-이영우(기술부), 위기량(검사/안전.환경부)

●공장 뉘시반(회장:장진홍 과장)은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고흥군 동해도 근해 일원에서 하반기 뉘시대회를 가졌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강행한 이번 대회에서는 작황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악천후 속에서

의 또다른 뉘시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시상어종으로는 감성동이였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1등:박근세(생산부)
- 2등:이태영(정비부)
- 3등:유인권(정비부)

●공장배구반(회장:김기열)은 지난 9월 24일,25일 양일간 생산담당 전무이사배 쟁탈 부대항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배구반원은 물론 각 부서 선수와 많은 응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신인선수 발굴 및 사원의 체력향상과 부서간의 친선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총 6개팀이 열전을 벌인 결과 생산부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최우수 선수로는 김규현 사우(생산부)가 뽑혔고, 감투상은 문경태 과장(검사과)이 차지하였다.

京仁공장, 분임활동 활성화 노력제고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평상시 우수한 분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87하반기 분임활동 평가회를 10월 19일 - 10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완료레마 사후관리와 테마진척 사항등 10개 항목을 실시하였는데 선발된 우수분임조는 다음과 같다.

- 발전부:한마음분임조
- 정비부:다람쥐분임조
- 정비부:등대분임조
- 기술부:크로바분임조
- 생산부:등대분임조

또한 분임조의 사기진작 및 분임

활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8월17일부터 10월24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분임조 체육대회를 거행하였다. 공장내 전분임조 42개조가 참가하여 분임조의 단결된 힘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장장을 비롯한 직원의 열띤 응원가운데 진행된 분임조 족구대회는 분임조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장의 단합 분위기를 크게 고취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우 승: 기술부 돌풍분임조(김승기)
준우승: 정비부 봉화분임조

京仁, 사무개선 사례발표회 영업부 분임조 대상차지

京仁에너지는 87년도 사무분야 업무개선 사례 발표대회를 지난 10월 23일(금)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격려사에서 박성근 사장은 QC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QC활동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보다는 분위기 조성, 지시에 의한 QC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QC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라고 하였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금상은 영업의 두꺼비분임조가, 은상은 기술부서의 새별분임조가 차지하였다.

京仁, 신입사원 12명 채용 60대 1의 경쟁률 보여

京仁에너지는 11월 8일 회장 면접후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12명을 확정 발표하였다.
총 705명이 지원하여 6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서울대 외 교과 졸업 구영모군등 12명을 채용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연수후 각부 OJT를 거쳐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각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京仁 동우회 소식 테니스회 · 음악감상회

●京仁에너지 본사 테니스 동우회는 지난 10월 17일 서초동 꽃동네 테니스코트에서 추계 본사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다. 복식경기로 예선 리그를 거친후 각조 1위팀끼리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송종관 대리, 박성만 사우조
준우승: 오진성부장 부부조

●본사 음악감상 동우회인 지음회는 11월부터 2개월 예정으로 매주 금요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법 및 오디오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였다. 교재는 동우회에서 일괄구입 무료 배부하였는데, 보다는 음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감상능력향상을 통해 여가생활 활화와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雙龍, 교양강좌 실시 서울대 조동성교수 초청

雙龍精油는 11월 5일 오후 6시 쌍용빌딩 18층 강당에서 87하반기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이승원 사장 등 본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동성교수의 강연으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됐으며 강연후 30분에 걸쳐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한편, 쌍용정유는 11월 3일 12층 회의실에서 여사원 예절 및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사단법인 예지원 강영숙원장을 초청하여 본사 여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받는 여사원」을 주제로 6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雙龍, 87정기보수작업 마쳐 에너지절약 및 공해방지일환으로

雙龍精油는 11월 17일 87년도 공장정기 보수작업을 계획대로 마쳤다. 이번 정기보수 작업은 각종 장치 및 기기의 정비·보수는 물론 에너지절약시설·공해방지시설설치 및 촉매교체 등 어느 때보다 폭넓게 실시됐다. 특히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하여 열교환기·에어 프리히터를 추가설치했으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전기집진기를 설치함으로써 쌍용정유는 거의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雙龍, 추계테니스대회 개최 인천저유소팀 우승차지

雙龍精油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에 걸쳐 르카프 테니스코트에서 87년도 추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부서대항 단제전으로 본사 각부서 및 인천저유소에서 15개팀이 참가하여 예선전은 1.2차로 나누어 리그전을 실시한 후, 준결승전부터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됐다.

각팀이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인천저유소 배진소장·박춘득사우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총무부 김종

호·남상의 사우팀과 해외관리팀
현민설부장·임창수 사우팀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雙龍, 금연운동 전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도모

雙龍精油는 11월초부터 전사적인
금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雙龍精油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
성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및 사원
건강 증진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실
시하기로 결정하고, 사원 스스로의
참여의식 고취와 이를 위한 금연운
동 관련 홍보 및 강연회 개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9일부터
담배의 폐해 등을 담은 비디오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영하고 있
다.

極東, 창립27주년기념식 가져

근속·유공사원 표창도

極東석유는 지난 10월 13일 회사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본사와 공
장에서 각각 창립기념식을 갖고 장
기 근속자 및 공로상·모범상 수상
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 하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장홍선 사장은
「기업문화의 건전한 발전·목표달성
을 위한 강인한 의지·대화를 통한
상호 협조의 신뢰 분위기 조성예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고, 특히 「공
통된 가치관의 신념을 가지고 목표
달성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기
념식후 장기 근속자 부부는 회사의
전 중역과 오찬을 같이 하였으며 장
기근속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25년 장기근속자: 송진환, 권현상,
김동선, 김상석, 김두원

*10년 장기근속자: 민응식, 홍순자,
예창기, 정호두, 김성수, 이철수,
백연옥, 이필우, 강수영, 김재효,
김인배, 이범우, 조종렬, 상병철, 김
용갑

極東, 종합건강진단 실시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極東석유는 지난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
상으로 강남 성모병원에서 종합 건
강진단을 실시 하였다.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1년
6개월마다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同社는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
할 예정이며 비용은 전액 회사부담
이다.

〈석유협회 人事〉

□ 채용

▲宋明信(업무부 총무과)

□ 전보

▲업무부 업무과 元讚姬(기획부
조사과)

▲기획부 조사과 朴正心(업무부
총무과)

(11월 9일자)

□ 石油圖書案内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7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